

여성團體 격려가 큰힘 됐어요

「女社員정년55세」 勝訴 李慶淑양



을 했다가 지난해 4월 재
판부로부터 「여사원은 통
상 25세에 결혼해 퇴직하
므로 8백46만원만 지급받
으라는 판결을 받았다.

무릎부상이 다 낫지 않
은 몸으로 절망에 빠져있
던 연약한 李양으로 하여
금 용기를 내어 항소하게
도와준 것은 「여성평우회」
「여성의 전화」등 6개 여

결에 반발, 「여성은 25세
면 결혼하고 퇴직한다」주
부가 노동가치는 취로사
업일인인 日 4천원정도로
라는 불평을 깨는 판례를
남기기 위해 결성했던 것.

「2심에서」 여성의 55세가
지 그루가 판결했지만 보
상액은 겨우 99만여원이
어닌 9백45만여원입니다.
年 400%의 상여금과 계
속근무시의 승진및 임금인
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
문입니다. 李양은 2심에서
여성에 대한 차별은 바로
잡아졌지만 근로자의 피해
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위해
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

그동안 많이 달라졌어요.
1심때는 보상금이나 잘받
으려한다는 생각뿐이었고
항소 시작할때도 나 자신의
애기를 남양에 드러내는게
내키지 않았는데 이제는
옳은 판례를 남기는데할수
있는 모든일을 할생각입니
다」 가족들도 처음엔 李양
의 사건이 확대되는걸 염
려했으나 이제는 「어떻게
하든 좋은 결과를 내야한
다」고 격려한다는것.

아버지가 소규모 건축업
을 하는 그리 넉넉지 않은
집안의 6남매중 네째인
李양은 요즘 여성문제 상
담기관인 「여성의 전화」의
일을 자원봉사자로 하고
있다. 「직장에 근무하던 때
의 계획대로 어떻게든 내
힘으로 대학에 진학해유
치원교사가 되는게 꿈입니
다. 또 어렸을때 당하는
여성을 돕고 싶습니다」 李
양의 열렬한 자신감이 넘
쳐보였다. <池永善기자>

“옳은 判例 남기게 大法 上告”

상고할 생각입니다」

李양은 여사원으로 근무

중 교통사고를당해 택시회
사를 상대로 3천5백50여
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

성단체들로 구성된 「25세
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위
한 여성단체연합회」(女早
聯)였다. 이들 여성단체들
은 李양사건에 대한 판

했다. 女早聯과 2심에서
스스로 무효변론을 말았던
趙英來변호사도 계속 돕기
로했다.
『제가 생각해도 자신이

『기쁩니다. 그리고 여타
분께 고맙습니다』 4일 항
소심에서 이겨 「여사원 정
년은 25세」라는 1심판결
을 깨 李慶淑양(24, 서울永登
浦구永登浦3동97)이 활짝
웃으면서 밝힌 첫소감이다.
『그러나 재판은 아직 끝나
지 않았습니니다. 대법원에